

# ‘생애 첫 황금장갑’ 양현종 “내년에도 상 많이 받고파”

정규시즌·한국시리즈 MVP이어 시상식 싹쓸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화려했던 올 시즌 피날레를 장식한 양현종(29·KIA 타이거즈)이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내 상을 많이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현종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 타이거즈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총 유효 투수수 357표 중 323표를 얻어 90.5%의 득표율로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트리플 크라운’이다. 사상 처음으로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양현종은 각종 시상식을 석권했고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으며 비번 겨울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시상식을 앞두고 2년 전 기록을 떠올렸던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은 “2015년에 내심 기대를 했는데 받지 못했다. 에릭 해커가 워낙 잘했다. 당시 해커가 수상자로 발표되자마자 바로 시상식장에서 나왔다. 올해는 그런 이쁨을 겪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상식 전 “올해 마지막 시상식인 만큼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다”고 말했던 양현종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못 받았으면 창피할 뻔했다”고 말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득표율 90%를 넘긴 양현종은 ‘탑 동료인 해터 노에시가 올해 워낙 좋았는데 득표율 90%를 넘겼다. 한

국시리즈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컨디션이 워낙 좋았는데 한국시리즈 성적이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326표를 받아 3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최정(30·SK 와이번스)에 최다 득표 자리를 내줬지만, “어렵지는 않다. 상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에 앞서 골든포스트상을 받은 양현종은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아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조금 놀란 모습이었다.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정규리그 MVP와 골든글러브 뿐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뽑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에서도 최고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카스포인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양현종은 동아시아대회상과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일구회 최고투수상을 모두 수여받았다.

그는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생각지 못한 성적을 거둬 팬들께 실망을 안겼다. 채찍질이 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며 “정말 꿈 같은 한 해를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시리즈 5차전”이라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상은 받아도 받아도 좋다. 상 받는 맛을 알았다. 내년에 또 시상식에 많이 오고 싶다”고 내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제 시상식을 모두 마친 양현종은 꿈에서 깨 내년을 바라본다.

양현종은 “일단 광주에 가서 선수가 아니라 아들이자 아버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내년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내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2연패를 목표로 하겠다. 집중해서 준비해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해 묻자 양현종은 “국가가 부름이면 가겠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해택을 받았고, 2014년 인천 대회 때 후배들에게 보탬이 됐다”며 “내년에도 나라가 부른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스

## 신태용 감독 “월드컵 대표팀 소집, 앞당기면 좋지만...”

“월드컵을 대비해 조기 소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준비중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기 소집 의사를 내비쳤다. 신태용 감독은 13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필드 팀 훈련에서 월드컵 로드맵을 제시했다. “K리그가 배려를 해준다면 조기 소집을 3~4일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과 조율을 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대표팀 소집이 5월 21일이다. K리그는 5월 19, 20일 일정이 잡혀있을 것이다. 한 라운드 정도를 3~4일 당겨준다면 조기 소집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K리그가 부담을 갖는다면 정상적인 날짜에 소집하겠다”고 전제했다.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 출전 중인 신태용호는

부다페스트에서 전지훈련을 생각 중이다. 북유럽 팀들이 이곳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가정 하에 약 2주 정도 훈련을 할 생각이다. 3월에는 월드컵을 대비해 좋은 팀들과 평가전을 생각 중이지만 아무래도 그 팀들이 국내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경험 삼아 부딪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 1월 중동 전지훈련 연습 상대로 스웨덴을 대비한 북유럽팀, 3월에는 독일을 대비한 톱클래스팀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1월 중동 전지훈련과 3월 유럽 원정 평가전은 아무래도 독일, 스웨덴전을 대비한 가상의 상대를 찾아야 한다.”

▶ 1월 전지훈련 경우 이번처럼

내년 1월 UAE 전지훈련 · 3월 유럽 원정평가 예정  
베이스캠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정 이유 ‘훈련환경’  
월드컵 한달 앞둔 내년 5월, K리그 일정 당겼으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16일 일본과 최종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다. 이 대회를 마치면 선수들은 잠깐의 휴식기를 거쳐 1월 재소집된다.

신태용 감독은 “1월 소집 명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군에 입대하는 선수, 아시아축구연맹(ACL)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 선수들도 있다. 이 기간은 의무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K리그 팀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월드컵 F조에 속한 한국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싸운다. 신태용 감독은 “대한국회에게 독일, 스웨덴을 가산한 유럽팀을 평가전 상대로 섭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래도 유럽 팀들이 국내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가 직접 해외(유럽)에 나가서 경험 삼아 직접 부딪치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다.”

▶ 대표팀 베이스캠프를 발표했다. 내년 1월 중동 전지훈련, 3월에도 국내보다는 해외 원정 평가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월드컵 로드맵은.

“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



스크비의 경우 도시 안에서 훈련 장까지 가는 시간도 민만치 않게 걸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쾌적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다.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백야 현상이 있다. 컨디션 조절에 문제 없다.

“현지에 가서 백야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방안의 커튼을 일막 커튼으로 교체하면 백야 현상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7~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낮에도 1~2시간 낮잠을 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러시아 현지에 가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 훈련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할 생각이다. 선수들이 나머지 시간에 여가 생활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월드컵을 앞두고 5월에 조기소집을 할 생각인가.

“K리그가 배려를 해준다면 소집을 3~4일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랑 조율을 해야 한다. 우리가 5월 21일 소집인데 K리그의 경우는 5월 19, 20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다. 이 기간 K리그가 몇 라운드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라운드를 5월 16일 정도로 당겨주면 우리가 한 3~4일 정도 빨리 모일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K리그 일정도 있고 부담이 간다면 정상적으로 5월21일에 소집하겠다.”

## KIA, 최다 5명 배출...5개 구단은 빈손 롯데 2명 · SK · LG · 삼성 1명 · kt 소속 선수 총 8표 그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 타이거즈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형우(첫 올 시즌 MVP) 시계방향, 이대호, 강민호, 최정, 박용택, 김태룡 코치(버나디나 대리), 손아섭, 양현종, 김선빈, 김민호 코치(안치홍 대리).

11번째 통합 우승을 일군 KIA 타이거즈가 무려 5명이 골든글러브 킥 가운데 5개 구단은 단 1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KIA 소속 양현종(투수),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 · 로저 버나디나(이상 외야수) 등 5명이 황금장갑을 썼다. KIA는 8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만큼 과연 몇 명의 수상자를 배출할지 관심을 모았다. 최대 6명 이상 배출도 가능해 역대 최다 수상자 기록도 갈아 치울 수 있을지 기대를 갖게 했다. KIA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시절

인 1991년 6명(신동열, 장재근, 김성환, 한태화, 이순철, 이호성)의 수상자가 나온 것이 역대 최다 수상이었다.

비록 최다 수상자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세 번째(1986년, 1988년)로 5명이 황금장갑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KIA는 해태 시절을 포함해 총 66명의 수상자를 배출, 최다 배출팀인 삼성(67명)에 불과 1명차로 따라 붙었다.

롯데가 2명(1루수 이대호, 외야수 손아섭), SK(3루수 최정), LG(지명타자 박용택), 삼성(포수 강민호)이 1명씩 수상자를 배출했다. 삼성은 FA 계약을 통해 강민호를 영입하며 2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반면 준우승팀 두산을 비롯해 NC, 넥센, 한화 kt는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2연패와 함께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던 두산은 단 1명도 수상 소감을 전하지 못했다. 양의지는 포수 부문 2위, 김재환과 박건우는 외야수 부문 4, 5위로 이쉽게 수상을 놓쳤다.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kt는 외야수 부문 유한준(4표), 투수 부문 라이언 피어밴드(3표), 2루수 부문 박경수(1표)가 총 8표를 얻는데 그쳤다.

뉴스스

## 펄펄나는 손흥민, 이번에는 헤딩...4경기 연속골

시즌 8호골...토틀넘, 왓포드에 2-0 승리



손흥민(토틀넘)이 제대로 물이 올랐다. 벌써 4경기 연속골이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이튼전 선발 출전, 1골을 넣었다.

지난 2일 왓포드와의 리그 15라운드, 7일 아폴로(키프로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 9일 스토크시티와

의 리그 16라운드에서 연거푸 골맛을 본 손흥민은 4경기 연속골로 상승세를 이었다. 리그 5호골이자 시즌 8호골이다. 왼쪽 측면에 배치된 손흥민은 전반 2분 만에 상대의 공을 가로챈 뒤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활약을 예

고했다. 전반 24분에는 골대 앞에서 발을 갖다댔지만 공은 하늘로 향했다. 후반에도 부지런히 질주하던 손흥민은 42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빠르게 차 준 프리킥을 머리로 방향을 바꿔 골로 연결했다. 공이 낮게 날아오자 자세를 낮춰 침착하게 헤딩에 성공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틀넘은 브라이튼을 2-0으로 제압, 리그 2연승을 달렸다. 승점 31(9승4무4패)로 4위가 됐다.

지난 주 울드 트래포드에서 만나 무수한 뒷발을 남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나란히 승리를 누렸다. 맨체스터 시티는 스완지 시티를 4-0으로 완파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머스 1-0으로 따돌렸다.

맨시티는 승점 49(16승1무)로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2위 맨유는 승점 38(12승2무3패)로 선두 맨시티와 11점차를 유지했다. 스완지 시티의 기성용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맨시티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